

유리 로트만 기호학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김수환

1. 들어가며

공간 기호학 — 공간적 형식과 그들 간의 관계를 매개로 삼는 각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분야이다. 공간 기호학의 대상이 보여주는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것들의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기호학의 발전 과정 전반에서 공간 기호학이 지니는 독특한 이론적 위상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알려진 바대로, 현대 기호학이 기반하는 기본 전제 중 하나는 '문화 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호 현상들은 일종의 '언어 체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방법론을 통해 연구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때 언어 체계와의 유비가 '자연 언어' 구조를 그 자신의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상정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학·음악·회화·신화·종교 등 각종 기호적 현상들이 자연 언어의 모든 구조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료의 비언어적 성격이 그들 속에서 공통의 '언어적 구조'를 추출해내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문화적 체계들은 자연 언어의 '유비,' 혹은 그것의 '상부 구조'로서 '자연 언어로부터 자라 나

온다.' 자연 언어, 보다 정확하게는 자연 언어 '구조'로의 이 같은 환원주의는 대부분의 초기 기호학 저술들에서 확인되는 지배적 경향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 양태를 지니는 이질적 문화 현상들을 '기호학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적 전제이다.

'언어 중심적 기호학'의 정초자라 할 소쉬르에 따르면, "사회적 삶의 심장부 안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기호론)은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에 기반한다. 그 첫번째가 자연 언어의 기표/기의 관계가 지니는 '자의성'이라면, 두번째는 기표가 지니는 '선형성'의 자질이다.¹⁾ 첫번째 원칙이 형식과 내용 간의 비조건적(동기적) 관계로 이루어진 여하한 조형적(도상적) 기호 형식의 문제를 논의의 영역 밖으로 내어놓는다면, 두번째 원칙은 기표의 '시간적 차원'으로의 종속성을 명백히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공간 범주와 관련된 언어적 잠재성을 차단한다. 따라서 자연 언어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호 현상들을 위한 메타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연스럽게 조건적, 시간적 의미 형성 메커니즘의 보편성에 관한 회의, 다시 말해 언어 중심적 기호학의 패러다임 하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되어온 도상적, 공간적 기호 작용 모델의 독자성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을 포함한 예술 일반은 "2차적인 체계로서 자연 언어 상부에 구축된 언어"라는 '2차 모델링 체계' 개념에서 출발하여 "모든 기호학적 체계는 상호 이질적인 방식으로 구축된 2개 이상의 언어들 간의 복수 언어적 관계"라는 원칙적 '복수 언어주의' 개념에 이르는 로트만 기호학의 진화 과정은 그 자체로 현대 기호학의 탈-언어 중심주의적 경향을 예시하는 동시에 기존 언어 중심적 기호학의 보충적 대안으로서의

1) "기표는 그 자신의 본질상 음성적으로 감지되는 것으로서 오직 시간 속에서 전개되며 그것으로부터 차용된 자질들로 특징지어진다. 1) 그것은 연장의 특질을 지니며 2) 이러한 연장은 하나의 차원, 즉 선형성을 지닌다." 소쉬르 Соссюр, Ф. Де., *Труды по языкознанию*, М., 1997, с. 103.

공간 기호학의 문제에 적절한 시사를 던져줄 수 있다. 로트만 기호학의 맥락 속에서 “모든 기호 체계는 복수 언어 체계이다”라는 명제는 곧 조건적-분절적(시간적) 언어 메커니즘과 조형적-비분절적(공간적) 언어 메커니즘 간의 원칙적인 공존과 상호 작용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자연 언어와 함께 후자의 메커니즘을 문화 체계의 구성을 위한 ‘1차적인’ 구성소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본 글에서는 로트만 기호학의 역동적 진화 과정을 ‘공간’ 범주를 중심으로 추적함으로써, 로트만 기호학 전반에 있어서 공간 개념이 지니는 예외적 중요성을 보이는 한편, 이를 통해 시사되는 공간 기호학의 이론적 위상과 가능성을 접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약 20년간에 걸친 로트만 기호학의 발전과 변모 과정이 드러남과 동시에 현대 기호학의 맥락 속에서 그것이 지니는 이론적 실효성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건성/시간성 대 도상성/공간성

정보의 시간적 전달 채널이 음성적 소리의 청취와 관련되어 있다면, 정보의 공간적 채널은 시각적 인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되풀이 지적되어왔다. 이미 자신의 저서 『라카온, 혹은 회화와 시의 경계에 관하여』에서 레싱은 몸과 색을 기호로 삼는 조형적 예술과 시간 속에서 질서화된 기호들을 사용하는 시(詩)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으며,²⁾ 야콥슨 역시 시간 속에서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음성적 기호를 수단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공간적 전체로서 인지되는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는 기호 체계 간의 근본적인 기호학적 차별성을 언급한 바 있다.³⁾

2) Lessing, Г. Э., *Лакоон, или О границах живописи и поэзии*, М., 1957, сс. 186~95.

3) Якобсон, Р. К., “вопросу о зрительных и слуховых знаках,” *Семиотика и искусствометрия*, М., 1972, сс. 82~87. (Jakobson, Roman., “On Visual and Auditory

언어 예술 텍스트를 그 대상으로 하는 로트만 초기 기호학에서 문학적 언어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자질이 질료로서의 자연 언어를 넘어 서려는 시도—자연 언어가 지니는 표현, 내용 층위 간의 '자의적 관계'를 극복하고 재현적 예술에서와 같은 '도상적 원칙'에 따라 언어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서 규정된다는 사실⁴⁾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삶의 모델'로서의 예술이라는 로트만의 최초 공식 속에는 이미 분절적-언어적 메커니즘과 그것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비분절적-공간적 메커니즘 간의 근원적 상호 작용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2차 모델링 체계'라는 잘 알려진 개념으로부터 언어 예술 텍스트의 도상적 지향이라는 중대한 자질을 제거했을 때만 우리는 "2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예술은 자연 언어 위에, 2차적 구조로서 '언어의 유형을 따라' 구축된다"는 언어 중심주의적 명제를 획득하게 된다.⁵⁾ 로트만 기호학의 이후 진화 과정 속에서 2차 모델링 체계라는 용어가 모습을 감추는 대신에, "두 가지 상이한 메커니즘의 공존과 상호 작용"이라는 새로운 테제가 이론의 전면에 등장하게 됨은 이 점에서 우연이 아니다. 언어 예술 텍스트의 도상적 지향은 더 이상 문학에 고유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보편 법칙의 한 발현이 된다. 문학 예술은 오직 비언어적(조형적·공간적)

Signs," *Phonetica* 11, 1964, pp. 216 ~ 20.)

- 4) "언어 예술은 언어적 기호로서의 단어가 지니는 근본적인 속성—표현/내용 층위 간의 조건성—을 극복하고 재현적 예술에서와 같이 '도상적 원칙'에 따라 언어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된다." Лотман, Ю. М., 『예술 텍스트의 구조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Об искусстве СПб., 1998, с. 72.
- 5) 물론 이 경우에 '2차적'이라는 수식어는, 2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예술 텍스트는 1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자연 언어와는 달리 의미 형성 과정에서 새롭게 보충적인 '외연의 체계'를 획득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 타입의 기호 체계에 관한 이 같은 관점은 결코 로트만만의 고유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연 언어와의 구분 속에서 예술적 타입의 기호 작용을 '그 어떤 2차적인 의미 작용'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예컨대 바르트("connotation")나 에코("개인어")에게서도 발견된다. Р. Барт, "Основы семиологии," *От структурализма к постструктурализму—французская семиотика*, М., 2000, с. 299; U.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1979, p. 202.

예술의 배경 하에서만 문화 체계의 구성소로서 존재,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조건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 간의 최초의 이항 대립은 '기호들의 연쇄'로서의 텍스트와 '총체적 기호'로서의 텍스트라는 새로운 이항 대립쌍을 낳는다. 분절적 단위인 기호로 나뉘지 않는 비분절적 텍스트 유형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한편으로 텔레비전·영화·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들이 현대 문화 속에서 지니게 된 방대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쉬르로 수렴되는 언어 중심적 기호학의 몇몇 기본 전제들에 대한 이론적 반성의 불가피성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연 언어와 함께 또 다른 문화의 메타 언어를 상정해야만 할 필요성, 다시 말해 문화 현상 전체로 지향된 새로운 관점을 통해 기존의 언어 중심주의적 접근 방식을 보충해야만 할 필요성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혹은 온전히 평가받지 못했던 '타자의 영역'을 기호학의 영역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로서 현실화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호학자 로트만의 입지는 묻혀 있던 '변방의 개척자' 퍼스에 기대어 기표, 기의 관계의 원칙적인 '조건성'이라는 소쉬르의 명제를 보완하고자 했던 언어학자 야콥슨의 그것에 비견될 수 있다.⁶⁾ '타자의 영역'에 대한 관심, 변방에의 지향은 고유의 영역이 지니는 비단일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것을 새롭게 재의미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문학에서 출발한 로트만이 문화를 거쳐가는 과정이 외연의 확대인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내포의 심화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그러므로 '상징은 그 안에 도상 혹은 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퍼스의 참신하고 현실적인 생각은 언어학의 지평을 넓히며 새로운 긴급한 과제를 던진다. 이 '기호학의 변방 개척자'의 가르침은 언어학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언어적 상징의 도상적 요소와 지표적 요소는 지금껏 과소 평가되어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되기까지 하였다. 언어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으로서의 특성, 그 결과 다른 기호, 특히 지표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와의 근본적 상이성. 이러한 사항들 역시 현대의 언어학적 방법론에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언어의 본질의 추구』,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학성사, pp. 259~60.

3. '공간적 모델링'

—문화 체계의 메타 언어

모델화 체계로서의 예술을 과학적 유형을 비롯한 여타의 모델화 체계로부터 구분 짓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자질은 그것이 '특수'와 '보편'을 동시에 모델화하는 독특한 형식이라는 점이다. 복제가 아닌 유비, 즉 대상의 모든 측면이 아닌 그것의 일정 부분, 기능, 양상의 선택적 재건이라는 모델 본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모델의 경우 '유비의 불완전성'은 여타의 경우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획득한다. 조각상을 해부 모형도와 구분 짓는 특징은 모델화 대상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예비적 분석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 육체의 모델이 아닌 인간 그 자체의 모델, 나아가서 인간적 감정의 모델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마찬가지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는 한편으로 고유명사를 지닌 특정한 대상(인간)의 삶의 묘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는 또 다른 대상, 즉 '그 시대 모든 여성들의 삶의 모델' '여성의 보편적 운명,' 나아가 '인간 삶 그 자체의 모델'이기도 하다.

예술 텍스트가 특수한 대상과 보편적인 대상의 동시적인 모델이 된다는 일견 자명한 명제는 그것이 예술적 '공간'의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 결코 단순하지 않은 함의를 획득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예술적 전언이 특정한 현상의 모델이 되는 반면, 예술적 언어는 보다 일반적인 범주 속에서 보편성을 모델화하며, 이 점에서 구체적인 사물들과 현상들을 위한 존재 모델이 된다."⁷⁾ 다시 말해, 예술적 언어는 특정한 사건들의 구조적 원칙, 곧 일정한 "세계상"을 모델화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특정한 '세계상'의 표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공간적 모델링"이라는 로트만의 개념

7) Лотман, Ю. М., 『예술 텍스트의 구조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с. 30.

이 유의미해진다.

‘공간적 관계’의 모델이 세계상의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고는 로트만 기호학의 진화 과정 초기부터 이미 발견된다. 1965년 발표된 논문⁸⁾에서 로트만은 러시아 중세 텍스트들 속에서 “지정학적 공간 개념”이 현대적 개념에는 합치되지 않는 “종교적-도덕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해당 세계상의 “가치론적 지표”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 세계 속에서 지리적 공간과 도덕적 가치는 상호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지정학적 ‘움직임’은 종교적-도덕적 가치 시스템을 통해 그 의미를 획득한다. 중세 문학에서 천당 혹은 지옥으로의 진입이 언제나 일종의 ‘여행’으로 인식된다는 점, 고대 러시아의 중세적 의식 속에서 주인공의 도덕적 위상의 변화가 언제나 공간상의 이동, 즉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움직임으로써 실현된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물론 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특수한 감각은 특정한 시대에 고유한 예외적 자질이지만,⁹⁾ 동시에 그것의 인간 문화의 본질과 관련된 그 어떤 보편적 자질이기도 하다.

공간적 관계를 통한 모델화가 지니는 일정한 보편성은 로트만으로 하여금 “공간적 모델링” 개념을 문화의 유형학적 기술을 위한 ‘메타 언어’로서 간주하게끔 한다.¹⁰⁾ “2차 모델링 체계”와 함께 모스크바-타르투 학파의

8) Лотман, Ю. М., 「러시아 중세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지리적 공간의 개념에 관하여О понят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русских средневековых текстах」,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Tallin, 1992, T. 1, сс. 407~12.

9) 위와 같은 독특한 공간 감각이 ‘시간’과 ‘공간’에 관한 현대적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중세적 “호로노토프”의 문제로 수렴되는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관하여는 구레비치, “공간과 시간에 관한 시원적 이해의 본질은 이들 범주들이 독립적 좌표가 아니라 물(物)들과 인간의 삶, 나아가 신의 섭리를 조정하는 거대한 신비적 힘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감정적-가치론적 색채로 가득 차 있다. (……) 공간에 깊게 정향된 인식은 과거·현재·미래를 단일한 평면 위에서, 마치 동시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Гуревич, А. я., 『중세 문화의 범주 Категор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й культуры』, М., 1984, с. 46.

10) Лотман, Ю. М., 「문화의 유형학적 기술을 위한 메타 언어에 관하여О метаязыке типологических описаний культуры」, *Семносфера*, СПб, 2000.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을 이루는 “문화 유형론”은, 일정한 문화 텍스트의 추상화된 모델로서의 문화 모형이란 다름아닌 공간적 언어, 공간적 모델링 형식을 통해 구축된 그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위/아래, 안/밖, 열림/닫힘, 내부 지향/외부 지향, 불변성/움직임 등과 같은 공간적 자질들은 문화 모형의 외형적 구조(메타 언어)이면서 동시에 조직화된/비조직화된, 문화/야만, 질서/혼란 등 가치론적 위계를 담지하는 문화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때, 유형학적 기술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문화적 텍스트”란 해당 문화의 관점에서 보다 추상화된 현실의 모델, 다름아닌 해당 문화의 “세계상”에 다름아니다. 로트만에 따르면, 이러한 보편적 세계상이 필연적으로 “공간적 자질”을 지니게 된다: “인간 의식의 인류학적 자질과 관련된 인류 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 중 하나는 인간에 의해 사고되는 세계상이 필수적으로 공간적 자질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 있다.”¹¹⁾ 이후에 로트만 문화 유형론의 중심 방향이 러시아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기반하는 문화 체계의 ‘통시적 기술’로 향하게 되면서, 그 자신의 이론적 실효성과 가치를 증명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¹²⁾ 문화의 자기 이해(메타-기술)의 변모 과정을 기술하는 문화 유형론이 근본적으로 공간적 모델링의 메타 언어적 가능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만약 세계 질서의 구성 자체가 일정한 공간적 구조를 기반으로 사고될 수밖에 없다면, 세계상의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간적 모델링”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상에 대한 일종의 유비, 모델, 보다 정확하게는 그것의 구조가 된다. 로트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기술 ‘대상’의 구조와 그것을 기술하는 ‘언어’ 사이에는 일종의 ‘동형동상’의 관계가 성립되며,”¹³⁾ 우리는 여기서 예술 텍스트 속에서 발견되는 형식/내용 층위 간의 “도상적”

11)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466.

12) 이에 관해서는 로트만의 논문 「기호 및 기호 체계의 문제와 11~19세기 러시아 문화의 유형론: 러시아 문화의 역학에 있어 이원적 모델의 역할(18세기 말까지)」, 로트만, 우스펜스키, 리하초프 공저, 이인영 편, 『러시아 기호학의 이해』, 민음사, 1993, pp. 13~96 참조.

13)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466.

관계와의 예기치 않은 대응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명백해지는 사실은, '도상적 기호'로서의 모델이라는 로트만의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시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커니즘 간의 상관관계, 즉 조건적-분절적 기호들의 연쇄로 이루어진 메커니즘(대표적으로 자연 언어)과 그 자신이 일종의 도상적 모델이 됨으로써 대상의 단일한 총체적 상을 구현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 간의 대립의 문제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째서 "공간적 모델링"의 문제가 문화의 기술을 위한 '메타 언어'로서 사고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로트만에게 있어서 문화에 대한 유형학적 topological 접근이란 문화에 대한 "내적 기술 방식"이 지니는 한계에 대한 반성적 대안일 뿐만 아니라,¹⁴⁾ 자연 언어로부터 차용되지 않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호 작용 메커니즘을 지니는 '또 다른 메타 언어'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대두된 논리적 결과이다. 1971년에 발표된 논문 「문화의 기호학적 메커니즘에 관하여」에서 로트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언급한다: "기존의 타르투 대학 기호학 출판물들에서는 문화적 현상들이 2차 모델링 체계들로 정의된 바 있다. 세피어-울프의 가설에 따라 인간 문화의 다양한 발현들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이 강조되었다. 최근 에밀 방브니스트는 자연 언어가 수행하는 메타 언어적 역할을 언급하며, 그것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전반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오직 자연 언어만이 온전한 기호학적 체계이며, 모든 여타의 문화적 모델들은 스스로의 질서화된 기호 작용 메커니즘을 지니지 못하는, 단지 자연 언어로부

14) Лотман, Ю. М., "내재적으로 묘사된 체계는 그 자신의 특화된 자질을 지닐 수 없다. 그것은 합법칙적 자질들과 우연적 자질들 간의 모순적인 집합으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살아 있는 현상이 아니라 단지 법칙들의 집산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자신과 대조적인 문화 유형의 집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되는 모든 문화적 시대는 바로 이 같은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문화의 유형학적 연구에 관하여 О типологическом изучении культуры」, *Семносфера*, СПб, 2000, с. 449.

터 차용된 '의미론적 모델'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¹⁵⁾

물론 문화의 '또 다른 모델'에 관한 위와 같이 다분히 가설적인 명제가 곧바로 “문화는 두 가지 상이한 일차 언어의 기반 위에서 구축된다”는 로트만 후기의 단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이미 자연 언어만으로 문화의 총체적 상이 구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 로트만에 의해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또 다른 유형의 기호 작용을 향한 위와 같은 의식적인 지향이 궁극적으로 그를 모든 기호학적 체계의 원칙적인 “복수 언어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끌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세계상의 표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공간적 모델링”이 로트만에 의해, 자신 속에 가치론적-이데올로기적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론적' 모델로 간주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 고유한 '통사론적' 구조를 지니는 일종의 독립적인 체계, 말하자면 일종의 '언어'로서 사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간적 모델링 개념이 형식적 체계로서의 언어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 개념을 일종의 '예술적 언어'의 자격으로 실제 문학 텍스트에 적용시킬 가능성이 무리 없이 마련된다. 공간적 모델링, '공간적 관계의 언어'는 다름아닌 문학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그것이 지니는 이론적 중대성과 실제적 효용성을 동시에 증명받는다.

4. 예술 텍스트의 '공간'과 공간으로서의 '예술 텍스트'

1968년 발표된 논문 「고콜리 산문에 있어서 예술적 공간의 문제」¹⁶⁾에서

15) Лотман, Ю. М., 「문화의 기호학적 메커니즘에 관하여 О семиотическом механизме культуры」, *Семиосфера*, СПб, 2000, с. 486.

16) Лотман, Ю. М., 「Проблем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прозе Гоголя,» *Избранные*

로트만은 고폴리 창작 속에서 '예술적 공간'은 인물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모델들의 구축을 위한 모종의 '형식적 체계'로 나타나며, 이런 의미에서 작가의 사유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추상적 언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고폴리에게 있어 '예술적 공간'은 "문자 그대로 예술적으로 유표화되어 있으며" 이는 예컨대 공간적 관계가 인물들의 도덕적 위상을 표현하는 '메타포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톨스토이의 경우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공간적 관계의 체계는 고폴리 창작의 심층 구조 속에 편입되어 창작적 진화 과정 전체를 통해 일종의 불변적 형식으로 기능한다. 환상성/현실성, 내부/외부 세계, 페테르스부르크의 관료적 세계/카자크인들의 자연 세계 등 공간적 성격을 지니는 다양한 이항 대립적 구조는 그 자신의 의미론적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창작 과정 전체에 걸쳐 견고하게 유지되며, 여타의 의미론적 체계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일종의 지배적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공간 범주가 고폴리 창작 세계 속에서 지니는 중대한 예술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로트만의 논문이 다른 한편으로 "공간적 모델링" 개념 그 자체와 관련된 지극히 이론적인 정향을 지닌다는 사실을 지적함은 매우 중요하다. 논문의 마지막 단락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로트만에 따르면, "공간적 관계의 언어는, 이미 언급했듯이, 예술적 모델링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흔히 시간적인 모델링조차도 공간적 언어 위에 구축된 2차적인 상부 구조로서 나타난다."¹⁷⁾ 여기서 기억할 점은 로트만이 다름아닌 '문학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조형 예술이 '공간' 범주와 관련되는 반면, 언어 예술 문학은 무엇보다도 '시간' 범주와 관련되며, 어떤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는 문학의 질료인 자연 언어 그 자체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

статьи, Таллин, 1992, Т. 1, сс. 413~47.

17)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447.

다. 일련의 기호학적 체계들 가운데서 언어가 지니는 특수성은 언어적 표현이 '공간'을 '시간' 속에서 표현한다는 근본적인 사태로부터 본유한다. 문학 텍스트의 기호학적 본질에 관한 위와 같은 일반적 공리를 배경으로 할 때, 문학 텍스트에 있어서 "공간적 언어는 1차적이고 근본적이다"라는 로트만의 명제는 필연적으로 모종의 '논쟁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어떤 점에서 이러한 명제는 "문학은 자연 언어 위에 2차적으로 구축된 2차 모델링 체계이다"라는 로트만 자신의 기존 명제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고콜리에 관한 논문에서 표명된 로트만의 이러한 입장은 이어지는 그의 저서 『예술 텍스트의 구조』(1970)에서 온전한 이론적 전망을 얻게 된다. 언어 예술 작품의 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저서의 마지막 장에서, 로트만은 다름아닌 '공간' 범주에 기대어 문학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할 뿐'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예술적 공간에 관한 최초의 문제의식은 예술 텍스트가 나름의 방식으로 제한된 일정한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예술 작품은 공간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비로소 한정되지 않은 세계의 모델이 된다."¹⁸⁾ 한정된 공간으로서의 예술 작품은 묘사되는 삶의 '부분'이 아니라(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총체적 사태를 재현하며, 따라서 무제한적 대상의 제한된 모델로서의 텍스트는 일련의 부분적 대상과 보편적 대상의 동시적 모델이 된다.¹⁹⁾ 텍스트의 공간적 제한성이 무엇보다도 조형 예술(특히 회화) 장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상 모든 종류의 예

18) Лотман, Ю. М.,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М., 1970, с. 204.

19) 예컨대 창밖으로 보이는 일정한 풍경과 그것을 묘사한 그림의 경우, 표면적인 대상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첫번째 경우 유리창에 투영된 영상이 자연 현상의 부분적 재현에 불과한 반면, 그것의 의식적 재현으로서의 '그림'의 경우 부분적 묘사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보편성을 획득한다. 스스로 자족적인 예술적 구조——공간적으로 한정된 소세계——로 인지되는 순간, 묘사된 풍경은 부분적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 대상 전체와 관련되며, 이러한 관련 속에서 '세계 그 자체'의 예술적 모델이 될 수 있게 된다. 손가락으로 만든 정방형의 사각형을 통해 현실의 장면들을 제한된 화면으로 바뀌보는 영화감독들의 직업적 습관은 이 점에서 지극히 논리적인 행위가 된다.

술 텍스트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독자적인 가치의 체계와 행위 규범을 지니는 일종의 '독립된 세계'로서 우리 앞에 주어지며, 이런 점에서 하나의 '자족적인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 언어 예술 작품의 '시작'과 '끝'이 텍스트의 공간적 경계를 지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 속에서 회화 장르의 '틀(액자)'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성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예술 작품 속에서 사건의 흐름은 서술이 종결되는 그 순간 정지한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인물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며, 사랑을 쟁취한 인물은 더 이상 그것을 잃지 않는다."²⁰⁾ 문제는 이와 같은 언어적 서술의 종결이 텍스트의 공간적 한계를 의미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종결의 방식이 '개별적 사건'의 묘사를 통해 '세계 그 자체의 사태'에 관해 말하는 예술 텍스트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최후를 묘사하는 종결부는 곧 세계 그 자체의 비극성에 관한 전언이 된다.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 텍스트 역시 회화 장르의 '틀'에 해당하는 구성적 장치를 지니며, 이는 시작과 끝을 지향하는 특정한 문화 유형(예컨대 '시작'을 유효화하는 많은 신화들과 중세 텍스트들, 혹은 '끝'을 유효화하는 종말론적 유형의 텍스트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일정한 의미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로트만의 사고는 모스크바-타르투 학파의 또 다른 이론가 보리스 우스펜스키의 이른바 '시점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신의 저서 『구성의 시학』에서 우스펜스키는, 예술적 묘사에 있어서 '틀'의 문제가 '내적' 묘사와 '외적' 묘사 간의 교체, 다시 말해 내적 시점과 외

20)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210. 이와 같은 종결의 원형적 형태는 설화나 민담에서 발견된다. 결혼식, 연회, 장례식 등 민담의 전형적인 종결부는 사건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구성적 장치이면서 동시에 결말의 상황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의미론적 유효소가 된다('이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새로운 시대의 문학 속에서 발견되는 공공연한 '열린 결말'의 형식은 닫힌 결말의 문학적 '조건성'을 배경으로 하여 보다 삶에 근접한 자연스런 '현실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

적 시점 간의 상호 이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시점 교체 현상이 예술 작품의 다양한 차원들(심리적·공간·시간적·어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일종의 구성적 '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²¹⁾

예술 텍스트 속에서 '공간'의 문제는 그러나 텍스트가 시작과 끝, '경계'를 지나는 일정한 공간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은 텍스트의 물리적 공간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결코 공간적이지 않은 추상적 개념들이 지나는 공간적 함의에 있다. 로트만에 따르면, "인간이 주변의 삶을 의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종교적·정치적·도덕적 세계 모델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 자질을 지니며," 어떤 의미에서 "보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공간적 성격을 갖는다."²²⁾ 인간의 사유 형식과 공간적 자질 간의 이와 같은 내밀한 관련성으로부터²³⁾ 본질상 비공간적인 개념들을 공간적인 관계의 언어를 통해 모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출된다.

21) "다름아닌 '틀'(그것이 회화의 액자를 의미하는 것이든 혹은 문학 텍스트의 특정한 구성적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건 간에)이 '재현'을 조직화한다. 그것은 재현에 기호학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재현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Успенский Б., *Поэтика композиции*, СПб, 2000, с. 225; 번역본, 『소설 구성의 시학』, 김경수 옮김, 현대소설사, 1992.

22) "우리는 일종의 심리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 자질들이 결여된 극단적으로 일반화된 어떤 개념으로서의 '모든 것'을 상상하고, 그 특질들을 정의했을 때,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특질들은 공간적인 자질을 지니게 된다. 많은 경험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편성'이라는 바로 그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Лотман, Ю. М., 『예술 텍스트의 구조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с. 211.

23) "인간의 사유에 있어 가장 흥미롭고도 역설적인 사실은 의식 그 자체는 내용상 결코 공간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어떤 공간으로 인지된다는 점이다. 관념은—결코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관념들 속에는 항상 공간이 있다. 그 안에서 관념화되는 모든 것은 오직 공간적 연속으로서만 사유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외적 세계를 전유하는 놀라운 방식이다. 이 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세계는 외적인 것으로서 인간에게 관념화될 수 없다." Hartmann, N., *Philosophie der Natur*, Berlin, 1950, p. 15(Топоров, В. Н., 「공간과 텍스트 Пространство и текст」, *Из работ московского семиотического круга*, М., 1997, с. 456에서 재인용).

‘고/저’ ‘좌/우’ ‘원/근’ ‘개/폐’ ‘연속적/불연속적’ 등 공간적 자질들은 사실상 ‘가치 있는/가치 없는’ ‘전/악’ ‘내 것/남의 것’ ‘접근 가능한/접근 불가능한’ ‘필멸의/불멸의’ 등의 다양한 문화적 모델들을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며, 이렇게 해서 “텍스트의 공간 구조는 곧 우주의 공간 구조의 모델이, 텍스트 내의 성분들 간의 내적 통사론은 다름아닌 공간적 모델링의 언어가 된다.”²⁴⁾

공간적 관계의 언어가 텍스트의 내적 통사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위와 같은 확신은 로트만을 “주인공에 의한 의미론적 경계의 횡단”이라는 독특한 “사건” 개념, 나아가 그러한 ‘사건들의 총체’로서의 “수젯(플롯)” 개념으로 이끈다. 로트만에 따르면, 플롯의 단위로서의 ‘사건’ 개념은 작품 속에서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 즉 서사의 ‘통사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²⁵⁾ 특정한 사건을 사건이게끔 만들어주는 현실과의 ‘의미론적 상관성’에 의해 결정된다. 말하자면 “그 어떤 사실과 행위에 관한 묘사도 문화의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이차적인 의미론적-구조적 지평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자리에 관한 문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건, 혹은 비사건으로 정의될 수 없다.”²⁶⁾ 결국 수젯의 개념은 결코 자족적인 어떤 것이 아니며, 일

24)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211. 인간적 세계 모델 자체가 공간적 자질을 지닌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묘사 대상(세계상)과 묘사(공간적 모델링) 간의 ‘동형동상’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적 모델링에 관한 로트만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이 기표/기의 간의 조건적 관계에 기반한 언어적 세계 모델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혹은 그와 ‘나란히’ 존재하는 도상적 세계 모델로 향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해준다.

25) 형식주의의 문학 이론에서 ‘수젯(플롯)’은 질료로서의 ‘파블라(스토리)’가 텍스트 속에서 이야기되는 방식, 말하자면 문학적 ‘가공’의 과정을 거친 이야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학 연구가의 관심은 텍스트 속에서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에 놓인다(에이헨바움, 「고골리의 『외투』는 어떻게 씌어졌는가」). 이에 관하여는 형식주의자 슈클로프스키의 ‘수젯’ 개념(Шкловский, В. Б., 「수젯 형성 기법과 일반적인 문제 기법 간의 관계 Связь приемов сюжетосложения с общими приемами стиля」, 『산문의 이론 Теория прозы』, М., 1983, сс. 26~62; 「수젯의 기능에 관하여 О функции сюжета」, 선집 2권 *Избранное в двух томах*, М., 1983, Т. 2, сс. 150~204), 보다 명백하게는 프로프의 개념(Протт, В. я., 「민담의 형태론 Морфология сказки」, М., 1997, сс. 18~20)을 참고할 수 있다.

련의 사실들을 사건으로 혹은 비사건으로 결정짓는 일정한 “세계상”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수젯의 단위로서의 ‘사건’이란 언제나 그것이 속한 세계상이 부여하는 일정한 ‘법칙’의 배경 하에서, 그러한 법칙에 대한 의미심장한 ‘일탈’의 형식으로 구현된다(법칙의 이행은 주어진 세계상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건이 될 수 없다). 여타의 인물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의미론적 경계의 돌파’가 주인공에 의해 감행되었을 때, 비로소 ‘사건’은 성립되며, 이러한 ‘사건’들의 총체로서 수젯은 구성된다.²⁷⁾

사건의 개념을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법칙의 위반으로 정의하면서, 로트만은 텍스트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 “수젯(플롯)이 없는 텍스트”와 “수젯을 지닌 텍스트”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로트만이 전자를 후자를 위한 “1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수젯이 없는 체계는 1차적이며, 독립된 텍스트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수젯을 지닌 텍스트는 2차적이며 언제나 보다 근본적인 수젯 없는 구조 위에 첨가된 층을 형성한다.”²⁸⁾ ‘수젯’을 주어진 세계상과의 관련 속에서 발생하는 혁명적인 요소로 이해할 때, 수젯을 지닌 텍스트가 기반하는 1차적이고 근본적인 체계란 결국 자신의 세계에 일련의 ‘절서’ 잡힌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상의 구축을 위한 조직적 기반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적 모델’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고콜리에 관한 앞선 논문에서 제기된 논쟁적 전제——“공간적 관계의 언어는 그것이 1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종 시

26) Лотман, Ю. М., 『예술 텍스트의 구조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с. 224.

27) 말하자면 주인공이란 텍스트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경계를 넘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주인공이 그에게 할당된 공간 내에서만 움직일 때 그것은 사건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단테는 유흥의 영역으로 하강해야만 하며,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에게 금지된 영역을 넘나들고, 혁명의 주인공은 민중들에게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탈출한다.

28)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228.

간적 모델링조차도 공간적인 언어 위에 구축된 2차적인 상부 구조로서 나타난다” —에 대한 이론적 응답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질서’가 없는 곳에는 ‘혁명’도 없다. 만약 “현대의 수컷 텍스트가 이러한 두 가지 층위 간의 충돌, 그들 간의 구조적 긴장의 산물”이라면 수컷(넓게는 모든 서사)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만약 보편성을 모델화하는 텍스트의 측면을 ‘신화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다면, 현실의 특정한 에피소드를 모델화하는 측면을 ‘파블라(스토리)적인 것’이라 부를 수 있다.”²⁹⁾ 신화적 측면을 배제한 채 오직 파블라적 측면에만 기댄 텍스트 구축이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예술을 현실의 한 단면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조차, 불가피하게 그것은 보편적 성격을 지니는 모델을 창조하게 되며, 결국 일정 부분 현실을 ‘신화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⁰⁾

‘모델’ 개념을 중심으로 한 로트만 초기 기호학 이론에서부터 줄곧 유지되어온 예술 텍스트의 ‘보편성’에 대한 관심이 이른바 ‘신화(적인 것)’의 문제와 관련되기 시작하는 이 지점부터, ‘공간’의 테마, 그리고 그것이 함축하는 ‘도상성’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현대적 의식을 특징짓는 논리적, 기술적 유형과 함께 문화의 반대편 축을 이루는 또 다른 의식 유형으로서의 이른바 ‘신화주의’의 개념 속에서 ‘도상성’과 ‘공간성’이라는 기존의 두 핵심 테마는 하나로 종합되기에 이른다.

29)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206.

30) 앞의 글, p. 207.

5. '신화주의'

—문화 체계의 메커니즘

1973년 보리스 우스펜스키와 공저로 발표된 로트만의 논문『신화-이름-문화』³¹⁾가 전하는 핵심적인 전언은, 신화적 유형의 텍스트에 고유한 '신화적' 의식과 구조란 논리적·언어적 구조에 침윤된 현대적 의식과 함께 문화의 전시기와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유형학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신화적 의식과 구조란 근대 이후 인류 문화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언어적 단초'에 대한 일종의 '구조적 대립항'으로 부상하며, 따라서 각각의 문화 단계에서 신화주의의 상대적인 쇠퇴와 부흥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의 완전한 소멸이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껏 언어적 유형의 지배적 위상에 억눌려 상대적으로 문화의 변방에 자리해온 '도상성'과 '공간성'의 자질들을, 다름아닌 신화적 세계상 속에서 발견하게 됨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신화적 세계상이 보여주는 도상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근원적인 법칙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의 유비,' 즉 '동형동상'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화적 유형의 텍스트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과 대상들의 무조건적 동일시의 경향을 목도하며,³²⁾ 종종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신화 텍스트들은 현대의 기호학적 의식에서 볼 때 "도상적, 혹은 유사-도상적 기호"에 다름아니다. 신화적 세계상은 '물(物)'과 '이름' 간의 비조건적(도상적) 동일시의 경향과 함께 오직 그 자신

31) Лотман, Ю. М., *Миф-имя-культура*, Семиосфера, 2000.

32) 예컨대 신화 속에서 날, 해, 인간의 생/사와 같은 순환들은 상호 간에 동형동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밤, 겨울, 죽음의 세 대상이 동일시되는 것은 현대적 의식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메타포'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모두 같은 것' 보다 정확하게는 '동일한 하나의 변형들'이다.

에게만 고유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신화적 의식 속에서 공간은 "그 어떤 질적 연속체가 아니라 고유명사를 지니는 일련의 대상들의 집합으로 인지된다." 이들 각각의 대상들 사이에서 "공간은 마치 끊어져 있는 듯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점 locus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은 시간 외적인 특징을 획득한다." "새로운 장소에 위치한 대상은 이전 상태의 모든 관계들을 상실하고 전혀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며" 바로 이로부터 "비공간적인(의미론적·가치론적) 관계들을 모델화하는 신화적 공간의 전형적인 특질이 도출된다."³³⁾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신화적 유형의 '공간' 이해가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공간적 모델링'과 직접적인 대응을 이루고 있음은 명백하다.

사실상, 이와 같은 대응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표면상 '공간적 모델링' 개념이 보여주는 명백한 분절성(고/저, 좌/우, 앞/뒤 등등)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그것이 언어적-분절적 단초가 아닌 도상적-연속적 단초로 수렴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적 모델들의 중대한 특징은 여타의 주요한 기호학적 모델들과는 달리 언어적-분절적 기초가 아닌 도상적-연속적 기초 위에 구축된다는 점에 있다. 그것들의 기반은 가시적-도상적 텍스트들이며, 언어화는 2차적인 성격을 지닌다."³⁴⁾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위와 같은 대응이 그 자체로 인간 의식이 지니는 본질적인 '혼종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사유의 형식이 원칙적으로 공간적-가시적 구조를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곧 우리의 의식 속에 논리적-언어적 층위와 함께 그 어떤 신화적 층위가 존재,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신화적 의식이 그 자체로 자족적인 구

33)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p. 530.

34) Лотман, Ю. М., *Universe of Mind—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ndiana Press, 1990; 러시아어판 *Внутри мыслящих миров(человек-текст-семносфера-история)*, М., 1996, с. 296.

조, 즉 자신 이외의 그 어떤 묘사의 총위로도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현대적 의식을 통한 신화의 묘사 가능성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의식 그 자체 속에 신화적 언어와 동형을 이루는 일정한 총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된다. 즉, 인간의 의식과 언어 속에 존재론적으로 조건화된 신화적 총위는 인간의 의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혼종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며, 신화적-비신화적 인지 간의 구조적 긴장을 만들어낸다.³⁵⁾ 신화적 의식과 구조를 문화 체계의 정당한 구성소로 자리매김하려는 로트만의 정향은 언어 중심적 문화 유형의 지배 아래 억눌려왔던 '도상적'- '공간적' 자질을 문화 체계의 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그를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론으로 이끈다: "'혼종성'은 인간 의식의 근원적인 자질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상호 번역 불가능한 체계 간의 상호 공존이 필수적이다."³⁶⁾

『신화-이름-문화』에서 최초로 표명된 위와 같은 로트만의 입장은 1970년대 내내, 그리고 1980년대 초까지 지극히 다양한 방식으로 갖가지 연구들에서 확인, 반복된다.³⁷⁾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제외되었던 타자의 영역,

35) 물론 본 논문에서 인간 의식의 혼종성을 증거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자연 언어 속의 '고유명사'의 존재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극단적인 추상화를 통한 고유명사의 보편적 자질은 신화로 수렴된다. 일련의 언어적 상황 속에서 고유명사가 보여주는 행태는 여타의 언어적 범주들이 보여주는 그것과 명백하게 구분되며(예를 들어 신화적 관념에 고유한 단어와 지시체 간의 비조건적 동일시) 이는 마치 우리 앞에 자연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축된 또 다른 언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고유명사의 체계는 자연 언어의 한 범주적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독특한 신화적 총위이다." Лотман, Ю. М., 『신화-이름-문화 Миф-имя-культура』, с. 530.

36)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с. 533.

37) 이론바 기호학적 '비단종성(혼종성)'의 자질은 인간 의식의 구조적 특징일 뿐 아니라 의미의 저장기이자 발생기인 텍스트, 나아가 '집단적 지성'으로서의 문화 체계가 공유하는 불변체적 자질로 간주된다. 로트만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사고하는 개체는 결코 단일한 구조, 단일 언어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 속에 상호 번역 불가능한 복수 언어적 단일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모든 지능적 구조의 필수적인 조건은 그것의 내적인 기호학적 비단종성이다." Лотман, Ю. М., 『문화 현상 феномен культуры』, Семносфера, СПб, с. 570.

문화의 변방을 새로운 이론적 체계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할 필요성은 기존 기호학 이론의 몇몇 근본적인 전제들에 대한 이론적 반성으로 이끌고, 결국 이는 '텍스트' 개념의 혁신적인 변모와 함께 로트만 기호학 이론 그 자체의 외양을 상당 부분 바꿔놓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로트만은 적어도 두 가지 지점에서 자신의 기호학이 지향하는 중심 방향을 수정하는데, 이 시기의 로트만의 입장은 첫째로, 문화의 비언어적-도상적 기초의 '선차성'을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자연 언어 구조는 이제 도상적 성격을 지니는 근원적 세계상에 대한 2차적인 언어화의 결과로 인식된다), 두번째로 기호학적 체계가 지니는 '복합적 혼종성'을 그것의 '단일성'에 앞서는 근본적인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언어들의 '다중성'이 근본적·1차적이며,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하며 단일하고 보편적인 언어를 향한 지향이 발생한다) 초기의 입장과 명백하게 구분된다. 이 시기의 로트만 이론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탈-중심적 경향(언어의 보편적 구조로 수렴되는 질서 잡힌 '전체성'에 대한 관념으로부터의 탈피, 기호적 체계의 활동이 지니는 모순적 복합성에 대한 강조 등)이 그의 이론적 전망을 구조주의의 언어적-보편적 총체성에 대한 내적 비판으로서의 '후기(/탈) 구조주의적 전략'에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련의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후기 로트만 기호학의 전반적 방향성이 후기 구조주의의 전형적인 행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은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소비에트 구조주의를 특징짓는 엄밀한 과학성의 추구로부터 원칙적으로 열린 역동적 의미 작용의 확충에 이르는 로트만 기호학의 진화 과정은 결과적으로 그를 '단일한 총체성'에 관한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 전제에 대한 본원적 부정과 그 뒤를 이은 극단적인 '포스트'의 선언으로 이끄는 대신에, 보다 새롭고 보다 총체적인—더욱 복잡하고, 더욱 자유롭고, 더욱 역동적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한 총체'로서의—문화 모델("기호계")의 창조로 이끌었다.

여기서 로트만의 새로운 총체적 모델이 여하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거대한 '추상적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다. 로트만이 말하는 "기호계 semiosphere"란 여하한 종류의 기호학적 행위들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기호학적 공간을 뜻한다. 이 개념이 베르날스키의 "생물계 biosphere"³⁸⁾ 개념으로부터 유추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기호계"란 상이한 언어들과 다양한 기호 체계들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와 기능 수행을 위해 선행하는 그 어떤 기호학적 조건, 다시 말해 모든 구체적 기호 작용에 앞서 존재하는 단일하고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이러한 "기호학적 공간은 (만약 유기체가 아니라면) 일종의 단일한 메커니즘으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 "개별적인 부분들은 기계적인 부분으로서 전체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조직 organ으로서 전체 유기체 organism에 포함된다."³⁹⁾

'복잡한 전체'로서의 대상을 '부분들의 합'으로 인식하는 오류⁴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기호 체계들의 분석에 앞서 단일한 하나의 메커니즘이자 추상적 공간으로서의 "기호계"를 고려해야만 하며, 이때 "보다 1차적인 것은 그 메커니즘(건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부분들(벽돌)이 아니라 기호계라 불리는 거대한 체계 자체이다."⁴¹⁾

38) 베르날스키의 '생물계'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들의 유기적 통일성과 그들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뜻한다. 이에 관해서는 Вернадский, В. И., 『생물계의 화학적 구성 Химическое строение биосферы Земли и ее окружения』, М., 1965.

39) Лотман, Ю. М., 『기호계에 관하여 О семиосфере』,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аллинн, 1992, с. 17.

40) 로트만에 따르면, 현대 기호학이 기반하는 두 학문적 전통——기호 체계의 제1요소로서의 기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립된 기호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퍼스-모리스 기호학과 기표, 기의 대립 개념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의사 소통 행위를 모든 기호 행위의 제1요소이자 모델로서 간주했던 소쉬르 기호학——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자적인 요소를 기초로 하여 이후의 모든 것을 그것과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공유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방법론 서설』에서 데카르트가 제시한 '제3의 법칙'(가장 단순한 것로부터 출발하여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근대적 학문 방법론 전반에 지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6. '기호계'

—인간, 텍스트, 문화의 기호적 삶의 공간

에이미 멘델커 Amy Mandelker는 1980년대 이후 로트만 기호학에 나타난 진화의 양상을 “뉴턴 물리학으로부터 상대성 이론으로의 이동”에 비견하며, “모스크바-타르투 학파 기호학은 소쉬르 언어학과 수학적 처리 과정에 근원을 두고 있는 과거의 이론으로부터 생물학적 biological, 생체론적 organismic 접근법으로 이동했다”⁴¹⁾고 말한 바 있다. 그녀의 지적대로, 전통적인 구조주의적 관점이 가정하는 이항 대립적 공간 구조가 아닌 난형(卵形) 모양의 공간 구조를 지닌 기호계 개념은 체계의 ‘중심’과 ‘주변’ 간에 벌어지는 역동적인 의미 작용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보다 용이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직된 이항 대립 모델이 제외하고 있는 문화의 통시적 ‘깊이’와 ‘역동성’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른바 로트만 기호학 이론의 ‘결정판’이라 할 이 개념 속에서 거의 모든 기존의 주요한 이론적 개념들이 새롭게 재의미화되고 있다는 사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름아닌 ‘공간적 언어’를 통해 재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 중 언어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경계” 개념은 ‘새로운 의미의 창출’을 위한 상호 번역 불가능한 두 하부 구조 간의 ‘번역’의 과정이라는 기존의 개념⁴³⁾

41) 로트만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각조각의 비프스테이크를 이어 붙여서 송아지를 얻을 수는 없지만 송아지를 잘라내면 비프스테이크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기호학적 행위들의 집단을 통해서 기호학적 총체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세계의 존재 자체는 일련의 기호적 행위들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c. 13.

42) Amy Mandelker, “Semiotizing the Sphere: Organicist Theory in Lotman, Bakhtin, and Vernadsky,” *PMLA*, Vol. 109, No. 3 (1994 May), p. 385.

43) 로트만에 따르면, 창조적 사유의 본질, ‘사고하는 개체’의 기본 구조는 상호 번역 불가능한 두 하부 구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건적-의미론적 번역의 형태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을 명백하게 가시화하고 있다. 기호계라는 추상적 공간이 지니는 “경계” 개념은 ‘내/외적 공간 모두에 동시적으로 속해 있는 일련의 점들을 경계로 간주하는 수학적 의미의 경계’ 혹은 ‘선택과 거부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기체의 외적 자극을 자신에게 맞는 생화학적 구조로 변형해 섭취하는 생물학적 여과기 filter’와 유사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외적 전언을 특정 기호계의 내적 언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번역하는 이중 언어적 메커니즘”⁴⁴⁾이 된다. 기호적 자의식의 입장(메타적 자기 기술의 차원)에서 보자면 경계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지만, 메커니즘 내부적 관점에서 보자면 경계는 의미 과정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 상호 번역 불가능한 두 하부 구조 간에 조건적 “대응”을 확립할 가능성이란 결국 그들을 나누고 있는 ‘경계’의 지점 안에 이미 ‘양가적’ 자질을 지니는 일정한 ‘번역’의 완충 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즉, 기호계의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수많은 “경계”들은 한편으로 ‘나’의 공간(언어)을 ‘타자’의 공간(언어)과 구분 짓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

한편, 문화를 포함한 모든 기호적 체계들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체계로 인식하는 과정에서(예컨대, 메타-기술의 경우) 스스로의 코드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구체적 사실들을 ‘체계 외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그것들

상호 번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이하게 조직된 두 언어—L1(분절적·통사적 유형의 언어)와 L2(비분절적·공간적 유형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하자. 만약 우리가 L1으로 된 최초 텍스트를 L2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최초 텍스트의 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단지 그것에 조건적으로 상응할 뿐인 ‘새로운 텍스트’가 된다. 번역의 필요성과 번역 불가능성의 이러한 공존 상황은 ‘일시적인 대응’ 혹은 ‘비유적 성격을 지니는 대응’을 확립하게 하는데, 새로운 사고의 메커니즘은 바로 이러한 ‘번역 불가능한 것들 간의 번역’으로서 나타난다. 로트만에 따르면, ‘새로운 사고’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이와 같은 상호 이질적인 두 요소의 공존 상황은 인간 두뇌의 양반구적 구조에서부터 거대한 문화적 조직화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고하는 메커니즘’의 모든 층위에서 예외 없이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Лотман, Ю. М., 「문화 현상 феномен культуры」, сс. 34~45.

44) Лотман, Ю. М., 「기호계에 관하여 О семиосфере」, с. 13.

을 자신의 경계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로트만의 인식은 “기호계” 개념에 이르러 체계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선명한 공간적 표현성을 획득한다. ‘중심’과 ‘주변’의 구분은 기호계의 내적 조직화를 위한 법칙이 된다. 만약 기호계의 ‘중심’에 엄밀하게 조직화된 기호학적 체계들(대표적인 예로 ‘자연 언어’)이 자리하며 체계의 지배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호계의 ‘주변’ 영역에는 지배적 언어의 관점에서 ‘비체계적인 것’으로서 배제된 ‘다른 체계’의 기호학적 조직체들이 자리한다. 중심적 체계의 관점에서 비체계로 규정된 주변의 ‘또 다른 체계들’은 전체 체계의 역동적 진화를 위한 일종의 ‘저장고’로 기능하며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의 침투를 수행한다.⁴⁵⁾

이와 함께 “기호계”의 내적 구조 그 자체는 로트만 기호학 이론의 시초부터 존재해온 언어적-도상적 세계상 간의 구조적 길항 관계에 대한 가시적 모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호계는 ‘외적 경계’를 지니는 하나의 총체적 공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내적 경계’를 통해 구획되는 보다 작은 규모의 ‘기호계들’을 자신 내부에 포함하는 커다란 ‘기호계들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기호계의 부분들이 하나의 ‘유기적 조직organ’으로서 ‘전체 유기체organism’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각각의 부분들이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총체이며 자신의 구조적 독자성을 지닌다는 점, 즉 부분들은 전체의 부분인 그 자체로 총체인, 전체와 닮아 있는 어떤 것(동형동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기호계가 수많은 기호계들의 계층적 구조로 이

45) 체계의 진화 과정을 ‘중심’과 ‘주변’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사실상 로트만 고유의 것이라 하기 힘들다. 일찍이 형식주의자 유리 띵냐노프는 『문학의 진화에 관하여』에서 이미 문학적 진화의 과정을 중심과 주변 간의 지속적인 자리바꿈, 즉 지배소의 교체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약간 다른 맥락에서 바흐친 역시 문화사의 전개 과정을 고급 문화(공식 문화)와 저급 문화(비공식 문화) 간의 교체 현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체계의 역동성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로트만의 “기호계” 개념 속에서 명백한 공간적 표현성을 획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46) Лотман, Ю. М., 앞의 글, c. 18, “기호계”와 함께 후기 로트만 이론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텍스트 속의 텍스트” 개념은 바로 이 지점과 관련된다.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루어진 일종의 '마트료슈카'⁴⁷⁾ 형태를 지닌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이 개념이 '신화적 세계상'에 대한 로트만의 앞선 인식으로부터 진화된 것임을 명백하게 증거하면서⁴⁸⁾ 동시에 '문화 체계는 하나의 언어(모델)만으로 구축될 수 없으며, 그것의 기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상이하게 조직된 언어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문화의 원칙적 "복수 언어주의" 개념에 대한 공간적 표현이 된다. 즉, 기호 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하부 구조들은 서로서로에 대해서 번역 불가능성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대립하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에 대해서는 '동형동상'의 관계 속에 놓인다. 예를 들어, 언어 예술의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된 도상적 언어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동형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각자가 자신의 언어로써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비기호학적 세계에 대해서 동형이 된다. 하부 대립쌍과 동형동상의 관계에 놓이는 상부의 차원이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전제가 된다면, 상이하게 조직된 하부 요소들 간의 이질성은 그러한 소통을 새로운 의미의 창출을 위한 창조적인 번역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기호계"를 그 자신 기호계의 구성원인 개체로

의식이 또 다른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텍스트는 그에 선행하는 또 다른 텍스트를 필요로 한다는 로트만의 이 개념(Лотман, Ю. М., 「텍스트 속의 텍스트 Текст в тексте」, *Об искусстве*, СПб, 1998, сс. 423~35)은 '사고하는 조직체'로서의 텍스트가 지니는 본질적인 존재 조건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수사적 형식으로서의 '메타-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벨라스케스의 회화가 보여주는 '그림 속의 그림' 효과, 셰익스피어 연극의 '극중극' 구조, 서술에 관한 서술로서의 '메타 소설' 기법, 촬영 신의 삽입과 같은 '영화 속의 영화' 형식 등 다양한 양태의 메타-구조들은 그것이 상이한 방식으로 코드화된 (내부/외부) 텍스트들 간에 발생하는 의미론적 긴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텍스트 속의 텍스트'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다.

47) 내부에 점점 작아지는 다수의 축소 모형을 담고 있는 전통적인 러시아 목각 인형.

48) 로트만에 따르면 "신화적 유형의 서술은 문학 텍스트에 특히 전형적인 연쇄의 원칙에 따라 구축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모든 개별 것들이 일정한 변형을 이루며 다른 것들의 유형을 반복하는 양배추처럼 핵심적인 심층의 수레를 무한 반복하면서 자라난다." Ю. М. Лотман, 「문학과 신화 Литература и Мифология」, *Труды по знаковым системам* 13, Тарту, 1981, с. 38.

서의 인간, 텍스트, 문화가 자신의 기호적 삶을 살아가는 총체적 공간으로 이해할 때, 이들 '사유하는 조직체'의 세 차원 간의 '동형동상isomorphism'은 명백한 것이 된다. 인간 두뇌의 비대칭적 구조(우뇌/좌뇌),⁴⁹⁾ 텍스트의 다언어적 하부 구조, 문화의 복수 언어 메커니즘은 기호계 속에서 각자가 점하는 계층적 위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를 모델화하는 두 가지 상이한 메커니즘의 공존'이라는 불변적 구조를 공유하며, 이 점에서 동형동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로트만의 "기호계" 개념은 약 20여 년 만에 걸친 로트만 기호학의 진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갖가지 이론적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종합하는 학문적 해답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이론 체계로서 로트만 기호학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공간' 범주를 향한 의식적 지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지향은 로트만 기호학의 전시기에 걸쳐 '지배적 경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포괄적·지속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호계" 속의 의미 작용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이 로트만에 의해 궁극적으로 "좌성-우성의 발현"이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수렴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위에서 우리는 기호계의 구조적 기반으로서 공간축 상의 대칭-비대칭의 교차와 분절성을 야기하는 시간축 상의 밀도의 교체를 언급했다. 이상의 모든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축을 하나로 수렴할 수 있다: 좌성-

49) 인간 두뇌의 양반구적 구조가 일정한 언어의 유형(예컨대 은유/환유)과 관련되어 있음은 일찍이 야콥손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Roman Jakobson, 「언어의 두 유형과 실어증의 두 유형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Selected Writings II*, Paris: The Hague, 1971, pp. 239~59. 로트만은 대뇌의 기능적 비대칭성을 인간 언어를 넘어 문화 체계 전반에서 목도되는 다양한 이원적 구조(유아/성인 의식, 신화적/역사적 의식, 도상적/언어적 의식, 행위/서사, 시/산문 등)와 관련시키며, 이 문제에 보편적 성격을 부여한다.

우성의 발현—이것은 유전적·분자적 차원에서부터 정보 처리의 가장 복잡한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화의 기반, 말하자면 모든 의미 형성 과정의 근간이 된다.”⁵⁰⁾ ‘대화’를 위한 기호학적 조건이 일정한 대응을 가능케 할 정도의 ‘동일성’과 그러한 대응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정도의 ‘차이’의 공존이라 할 때(일정한 차이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란 불필요하며, 반면 절대적인 차이의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전제하며 대칭-비대칭의 쌍을 만들어내는 “거울상(像)의 메커니즘”은 인간 두뇌의 개체적 차원으로부터 예술 텍스트의 내적 구조,⁵¹⁾ ‘집단적 지성’으로서의 문화 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만약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이 의미 형성 과정의 기반이라면, 좌우상(左右像)enanthiomorphism은 의미론적 조직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위한 기반이 된다.”⁵²⁾ 대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것의 참여자들이 한편으로 서로 다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의 내부에 ‘상대방의 이미지 image of counterpart’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울상의 메커니즘은 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된다.⁵³⁾

50) Лотман, Ю. М., “О семиосфере,” с. 24. 로트만이 대화적 메커니즘을 ‘공간적인 언어’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로트만의 ‘대화’ 개념을 결코 바흐친의 그것과 일면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바흐친과 로트만의 ‘대화’ 개념이 지니는 차별성에 관해서는 줄고, 「예술의 복합 기호성과 문화의 복수 언어주의—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기호학 연구 10집, 2002, pp. 223~48; 김수환 김 Су Кван, 「“대화”에 관한 대화—바흐친과 로트만 Диалог о “диалоге”—Бахтин и Лотман」, *Невельский сборник, Выпуск 8*, сс. 91~102 참조.

51) 이런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본신’의 모티프는 거울 모티프의 문학적 반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거울이 일상적 세계의 대칭적 모델이라면, 본신은 인물의 대칭적 모델이다. 거울 반영의 법칙에 따라 변형된 형태의 본신은 일정한 불변체적 자질을 원대상과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일그러진 변형이 된다. 예컨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과 스메르자코프의 관계가 그러하다.

52) Лотман, Ю. М., 「기호계에 관하여 О семиосфере」, с. 21.

53) 우리는 여기서 주관적 표상과 객관적 지각 사이의 경계 해소를 통해 상상적 자아 구축을 가능케 하는 라캉의 ‘거울 단계’ 개념이 로트만에 의해 개인적 심리적(언어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문화 기호학적 전망을 획득하고 있음을 본다. 거울상의 메커니즘은 대칭-비대칭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발생시키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메커니즘 속에서 종종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초기의 “모델론”에서 후기의 “기호계” 개념에 이르는 로트만 기호학의 진화 과정은 기호학적 대상이자 방법론으로서의 ‘공간’ 범주에 대한 문제의식과 떼어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술 텍스트에서 문화 메커니즘, 나아가 총체적 기호적 장에 이르는 공간 개념의 확장과 심화 과정이 그 자체로 기존의 ‘언어 중심적 기호학’에 대한 내적 반성과 방법적 대안의 모색을 동반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로트만 기호학에 관한 보다 심화된 연구는 현대 기호학의 맥락 속에서 ‘공간 기호학’이 접하는 이론적 위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수환(2002), 「예술의 복합 기호성과 문화의 복수 언어주의 — 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기호학 연구 10집, pp. 223~48.
-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1989),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 보리스 우스펜스키, 김경수 역(1992), 『소설 구성의 시학』, 현대소설사.
- 움베르토 에코, 서우석 역(1985), 『기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 유리 로트만, 유재천 역(1991),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 , 우스펜스키, 리하초프 공저, 이인영 편(1993), 『러시아 기호학의 이

‘우리(我)의 세계와 그들(非我)의 세계를 갈라놓는 기호학적 ‘경계임이 판명된다. 이때 ‘경계’로서의 ‘거울’은 ‘나의 관점(내적 조직화)의 관점’을 통해 비조직적인 것, 올바르게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타자’의 세계가 사실은 ‘또 다른 조직화’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호가 된다. 1988년 발행된 『기호 체계 문집』 22권은 “거울-거울성의 기호학”이라는 주제 아래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실고 있다. 보르헤스와 나보코프 소설에 나타난 ‘거울성’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는 레빈 Ю. И. Левин의 논문, 「잠재적 기호학적 대상으로서의 거울 Зеркало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ый семиотический объект」을 참조할 수 있다. Труды по знаковым системам 22, Тарту, 1988, сс. 6~24.

해, 민음사.

- Барт, Р. (2000), Основы семиологии От структурализма к постструктурализму—франц-узская семиотика, М.
- Вернадский, В. И. (1965), Химическое строение биосферы Земли и ее окружения, М.
- Гуревич, А. Я. (1984), Категор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й культуры, М.
- Ким Су Кван (2002), Диалог о "диалоге" —Бахтин и Лотман, Реальность и Субъект, 2002, Т. 6, No. 3, сс. 66~69.
- Левин, Ю. И. (1988), Зеркало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ый семиотический объект, *Труды по знаковым системам* 22, сс. 6~24.
- Лессинг, Г. Э. (1957), Лакоон, или О границах живописи и поэзии, М.
- Лотман, Ю. М. (1965), О понят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русских средне-вековых текстах,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аллинн, Т. 1, 1992.
- (1968), О метаязыке типологических описаний культуры, *Семиосфера*, СПб, 2000.
- (1968), Проблем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прозе Гоголя,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аллинн, 1992, Т. 1.
- (1970),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М.
- (1971), О семиотическом механизме, *Семиосфера*, СПб, 2000.
- (1973), Миф-имя-культура, *Семиосфера*, СПб, 2000.
- (1978), феномен культуры, *Семиосфера*, СПб, 2000.
- (1981), Текст в тексте, *Об искусстве*, СПб, 1998.
- (1981), Литература и мифология, *Труды по знаковым системам* 13, Тарту, 1981.
- (1984), О семиосфере,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аллинн, 1992, Т. 1.
- Пропш, В. Я. (1977), Морфология сказки, М.

- Соссюр, ф(1977), Труды по языкознанию, М.
- Топоров, В. Н.(1997), Пространство и текст, *Из работ московского семиотического круга*, М.
- Якобсон, Р.(1972), К вопросу о зрительных и слуховых знаках, *Семиотика и искусство-мерия*, М., сс. 82~87.
- (2001), В поисках сущности языка, *Семиотика-антология*, М.
- Успенский, Б.(2000), Поэтика композиции, СПб.
- Шкловский, В. Б.(1983), Теории прозы, М.
- (1983), Избранное в двух томах, М.
- Eco, U.(1979),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1979.
- Jakobson, Roman(1964), "On Visual and Auditory Signs," *Poetica* 11, pp. 216~20.
- (1971),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Selected Writings* II, Paris: The Hague, pp. 239~59.
- Lotman, Y. M.(1990), *Universe of Mind—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ndiana Univ. Press.
- Mendelker, Amy(1994), "Semiotizing the Sphere: Organicist Theory in Lotman, Bakhtin, and Vernadsky," *PMLA*, Vol. 109, No. 3.

Problem of “Space” in Semiotic Theory of Y. Lotman

Kim Soo Hwan

In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number of Y. M. Lotman's theoretical notions related to the category of “space”(“artistic model” “spatial modelling” “mythologism” “semiosphere” etc.) in its close interrelations with the dynamic development of the scientist's ideas and explores the “overall” meanings of this particular aspect as the main issue of Y. M. Lotman's Semiotic Theory in general. In this process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reveal the status of “Spatial Semiotics” as methodological alternative to the logocentric Semiotics, rooted in the legacy of Saussure.

열쇳어: 도상성, 공간(성), 모델링, 세계상, 기호계, 유리 로트만.